

하루를 시작하며



허 경 자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위성곤 도정의 막이 올랐다. 인수위 원회가 고민한 100대 과제도 선정됐다. 간소한 취임식으로 권위와 겹치려를 내려놓는 실용 도정을 천명했다. 연이은 민생 탐방으로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새로운 국정, 소통을 중심에 둔 행정구현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단순히 취임을 축하하고 미래를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걱정과 우려가 많다. 치열한 당내경선과 63%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바닥까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 발등의

새로운 제주도정의 출발에 즈음하여

불 아니던가. 현명하게 결단하고 신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도 쌓였다. 갈등의 진원지 제2공항과 행정체계, 현재 논쟁을 남긴 청다오 항로, 속의가 부족했던 BRT 시스템과 UAM 기반 시설 등 모두가 녹록지 않은 재검토 현안들이다. 게다가 2조 원이 넘는 실무 채무액 공개로 인수위원회로부터 사업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라는 재정 건전화 권고까지 받지를 앉았는가.

지난 오영훈 도정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내걸었다. 그린수소, 우주항공, UAM과 트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함께 합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퇴임 후 지역사회의 평가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제주가 안 해 본 미래 사업을 구상, 실천했지만 4년의 시간은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첨단산업에 첫발을 내디

뒀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의 핵심 공약도 단기간에는 성사가 어려운 난제들이다. AI데이터센터 유치, 제주과학기술원 설립, 전남도와 연계한 대규모 풍력발전 및 도민 연금 지원 등 취임 초부터 고삐를 단단히 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염불의 확률이 큰 사업들이다. 때문에 대다수 도민은 전례 없는 높은 지지를 보내고도 새로운 도정을 걱정해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민선 9기 도정은 시대적 사명감으로 움직여야 한다. 첩첩이 쌓여있는 현안들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을지라도 공약 점검과 동시에 로드맵을 설계하는 민첩한 기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갖는 현실성과 개발과 보전의 논쟁 선상에 있는 환경중심도시의 상충적 경계도 확인해야만 한다. 지방정부로서 제주섬이 갖는 고유한 지정학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재명정부 5급3특의 지방 중심 기조에서 제주의 성장은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지사가 표방한 미래로 만나는 제주는 어떤 제주를 말함인지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 실현성을 설정하고 도민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전임 도정의 시간은 갔다. 이젠 새로운 지사가 정치적 관록과 축적된 내공으로 도민 결집의 역량을 보일 때다. 그 출발에 즈음해 제주다음이란 도민의 보편적 인식이 새도정의 원초적 가치로 전제되길 희망한다.

사설

미래산업 대규모 투자... 관건은 재원 확보

제주도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을 민선 9기 미래성장 전략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5년간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민선 9기 7대 전략 과제 가운데 AX대전환, 기후에너지, 인공지능 행정혁신 등 4개 과제와 100대 공약과제 중 15개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5년간 국비 포함 총 3조8223억원이 투입된다. 예산규모는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1조3480억원을 투입해 국내 AI기술 인프라를 연결하는 '제주 글로벌 AI 허브'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에너지분야는 1조5524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 영역 전기화를 통해 '제주형 에너지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우주산업과 스마트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1773억원이 투입돼 우주·드론·자율주행의 인공지능·데이터 융합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기반 조성에도 6465억원을 투입해 4대 과학기술원과 제주가 함께하는 연합캠퍼스를 설립하고, 제주과학기술원 전환 등을 추진한다.

민선 9기 미래성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아무리 비전 있는 사업이라도 적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자체 재원 등 연차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 조달과 냉각 수요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열린마당

제주 여행의 첫 준비는 '안전'이어야 한다



고 기 봉
성산 남성의웅소방대 부대장

제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관광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뜻이다.

여름 중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몇 분이다.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요청하는 행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문제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위급한

순간에 망설이게 된다는 점이다. 위치를 모르거나 사용법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제주 관광 안전정책은 장비 보급을 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제주에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관광객은 낯선 장소에 있고, 해안가나 오름, 올레길처럼 구급대 접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공간도 많다. 결국 위급한 순간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건 현장에 함께 있는 시민이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10분의 교육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

제주 관광의 품격은 불거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항·항만·주요관광지·숙박업소·마을회관 등에서 실용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의식 확인·119 신고·가슴 압박·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이라도 익힌다면 위급한 순간 큰 힘이 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 지사, 여름철 민생 안전망 현장 점검

빗물받이 현장·쉼터 방문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심 빗물받이 준설 현장과 무더위 쉼터를 잇따라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

위 지사는 7일 칼호텔사거리에서 중앙여중으로 이어지는 준설 작업 현장을 찾아 집수구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줘서 감사하다”면서 “가장 더운 한낮에는 무리하지 말고 아침이나 늦은 오후로 작업 시간을 조정해 온열질환을 예방해달라”고 당부.

이어 용담1동 남사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이동한 위 지사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살펴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도록 도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건축 인·허가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가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 검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며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기름값 짜맞춘 농협 주유소의 배신

전국에서 기름값이 비싸기로 손꼽히는 제주지역의 주유소 가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드러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협·서귀포농협 주유소의 가격 담합 실태는 충격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던 농협 주유소가 가격 짜맞추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회원사들의 요청을 받아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로부터 다음 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은 뒤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해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렸다. 또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는 다음 날 판매가격을 협회에 미리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가격 인상·유지 등 가격 경쟁 제한 행위에 가담했다.

협회에 제공한 기준가격보다싼 주유소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고 기준가격 준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농협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시저된 가격담합은 2022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조사에 착수한 2024년 7월까지 계속됐다.

농협은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공동 이익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어서다. 그런 농협이 주유소협회와 함께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결정 구조와 내부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해 가격 경쟁 제한 행위에 가담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병순(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7월 8일

아들	윤명수	며느리	김은지
	평일		강민자
	평훈		김희선
딸	윤해경	사위	김충호
	은경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6월 17일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거 해산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7월 8일

주식회사 에이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216(도두일동)
정산인 현승남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